

태권도 역사에 내재된 ‘기원’의 의미*

차명환** (용인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시대적 상황과 태권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민족주의의 인식론적 한계와 함께 역사연구에 있어 인식의 주체이자 토대로 기능하였던 ‘기원’의 의미를 회의하여 태권도사 연구에 관한 인식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국기주의이데올로기가 극성을 부린 시기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전통문화’ 담론을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지배담론으로 인식하고 전통문화 진흥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태권도는 전통무술이 되어 국기(國技)로 발명되었으며 국가의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둘째, 태권도사 연구에 나타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감성과 운명공동체라는 비이성적,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태권도의 보편성 보다는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전통무술의 기원과 태권도를 일치시켜 역사의 연속성, 배타성을 주장하는 편향적 역사관을 주입하게 됨으로써 태권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인식론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역사적 사실은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행위이다. 따라서 ‘기원’을 이해하는 관점은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때 비로소 현대에 호명된 과거를 실제 모습에 더 가깝게 재현할 수 있음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태권도사, 전통문화, 기원

* 이 논문은 2020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chamh@yongin.ac.kr

I. 서론

태권도는 현재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효용성을 인정받고 한국을 대표하는 신체문화로서 그 가치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문화는 민족고유의 관념, 가치, 규범 등을 내포하고 있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적 정체성을 내포한 신체문화로써 태권도는 그 가치와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며 해방이후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진출, 군을 통한 태권도 보급, 국가의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무술로 급속히 발전하며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는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선정하고 태권도 공익사업 및 태권도 의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현지화 전략 등을 수립하여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강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30일 제 258회 임시국회 제 1차 본회의에서는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國伎)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기태권도’라는 친필 휘호로 인해 태권도가 한국의 국기로 인식되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태권도 진흥발전을 위한 공적인 지원과 보호가 법률로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국기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태권도는 이미 국내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체문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왔으며, 1996년도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동성을 대표하는 10대 문화상징의 하나로 선정되며¹⁾ 한국문화의 상징적 주요소재로 부각되었다.²⁾ 또한 국제 스포츠 대회의 대명사로 불리는 올림픽에서 1988년

1) 1996년, 당시 문화관광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문화상징으로 태권도, 한글, 불고기, 김치,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불국사, 석굴암등을 선정하였다.

2) 태권도는 대내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수양, 신체단련 등 중요한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도 다른 무도 종목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태권도 문화연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 시범종목을 거쳐,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포함되면서 명실공히 세계 속의 한국 무술로 자리매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위상과 그 수련과정에 내포된 교육적 효용성을 통해 현재 태권도는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각론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역사정립에 관한 문제는 그 중에서도 핵심담론이자 현재진행형인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태권도 역사 정립의 문제는 기원의 발견을 통한 전통의 입증, 일체감을 통한 민족적 자긍심 함양 등을 통해 태권도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주의 태권도사는 주로 민족주의 역사관에 깊은 영향을 받아 태권도와 전통무술을 결부지어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태권도사 연구에 있어서도 역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전통적 역사이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실체 없는 전통을 호출하여 왜곡된 역사정립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³⁾

비록 이시기의 연구들이 초창기 태권도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역사적 의미가 결여된 역사서술로 태권도사 전반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학문적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⁴⁾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 역사학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전제들에 대한 회의와

대, 2007;17)

- 3)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태권도사에 대한 관심은 태권도의 역사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보다는 태권도의 사회, 문화적 의미규정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 이루어진 태권도사 서술은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태권도의 사회, 문화적 의미규정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송형석, 이규형, 2008;160)
- 4) 전통주의 태권도사에 대해 최복규(2018;4)는 전통성의 강조, 배타성, 민족주의적 시각의 역사서술등에 따른 인식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성에 더해 다양한 관점과 주제들로 연구를 확장하려는 최근의 학문적 경향⁵⁾에 비추어 태권도사 정립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하고, 전통주의 태권도사에 내재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인식론적 한계와, 태권도사는 물론 역사학의 학문적 전통 하에서 인식의 주체이자 토대로 기능하였던 ‘기원’의 의미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II. 태권도사 정립기의 시대적 배경

전통주의 태권도사 이론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의미규정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반영” (송형석, 이규형, 2008:160)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역사 인식과 관련한 심리적 토대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해방이후 1950년대의 대한민국 사회는 신탁통치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전쟁으로 인한 남과 북의 분단 등 전반적으로 혼란과 불안정한 시기를 거쳤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 원조를 기반으로 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근대 서구문명의 병폐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등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

5) 역사학의 위기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역사의 ‘실재성’과 ‘연속성’에 대한 도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역사학은 과거에 실재했던 세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때 과거의 ‘실재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료에 적인 언어의 투명성이었다. 즉 역사학은 사료의 언어가 외부의 실재를 일대일로 지시한다는 지시이론(reference theory)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나 ‘언어적전회 linguistic turn’의 주장자들은 언어란 의미를 전달하는 완전무결한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구성하는 원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와 더불어 서양문명의 일차원적이고 연속된 시간관에 대한 회의도 증폭되었다. 한사회 안에서도 상이한 시간들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각 시대들도 단절되어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결국 이 두 가지 주장은 역사가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언어범주에 따라 역사를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졌다.(이은영, 2000:2-3)

고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전통문화’ 담론을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효한 지배 담론으로 인식하고 국가주도의 전통문화진흥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태권도 역시 과거의 기억 즉, 전통무술로 호출되어 발명되었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60년대 말 이후로는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비판과 논란을 억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더욱 “전통문화 ‘가 담론화 된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당화 담론에 적합한 과거의 기억들, 특히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기억들이 더욱 증점적으로 과거로부터 호출되어 나오게 된다. 그와 같은 호출의 과정은 이전까지 타자화 된 대상으로서 인식되지 못하던 문화적 요소들을 새롭게 “전통’ 이라 “호명”, 혹은 “발명”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각종 제도 및 기구의 마련과 각종 사업의 전개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순신과 같은 역사 영웅의 되살리기 작업이나 발명된 전통무술인 태권도의 국가화(國技化)와 같은 것들은 박정희정권의 군사주의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윤영도, 2007,341)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재호(1998, 102-103)는 태권도는 국가와 사회에 의해 민족의 전통무술로 발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태권도 조직의 통합과 국내외 보급, 국가의 핵심 조직인 군대에 태권도 보급, 육군소장 출신인 최홍희와 외교관 출신으로 당시 대통령 경호실 수석 보좌관 이었던 김운용 등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인물들을 통한 발전 주도, 국가 기관인 문교부에 의한 학교체육종목 지정, 박정희에 의한 ‘국기태권도’ 휘호 하사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⁶⁾ 이러한 배경에는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진출, 국군태권도

6) 박정희 체제는 민족주의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속에 ‘잘 살 수 있다’ 는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조상들의 빛나는 얼과 예지’ 를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민족주체성의 확립)을 불어넣으려고 하였다. 특히 역사와 전통에 대해 박정희 체제는 식민사관을 극복한 주체적 한국사관의 정립, 유·무형 문화제의 발굴, 복원 및 재건축, 위인들의 발굴, 그리고 한국의 전통무술로 간주된 태권도의 국내의 보급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전재호, 1988:84)

교관들의 태권도 시범 및 보급 활동 등으로 인해 비공식적 외교채널로서의 태권도의 입지가 이미 국제적으로 전향적이었던 것과 최흥희가 이끄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태권도가 보급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 또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1>은 윤영도(2007, 345-346)의 연구에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나타난 정부의 전통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연대표를 태권도의 연혁과 비교, 재구성한 것으로 이시기와 맞물려 태권도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가에 의해 조직통합, 국내외 보급 등 태권도 발전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의해 태권도가 의도되어진 전통무술이자 전통문화로 역사 속에서 호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전통문화정책과 태권도 연혁 비교

전통문화정책	태권도 연혁
1961 문화유산(문화재)관리국으로 통합	1961 대한태수도협회창설 ⁷⁾
1962 문화재보호법 제정	1963 대한체육회 가입
1966-75 현충사 중건, 기념관 신축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 채택
1965-76 세종실록 국역 사업	1965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
민족 문화 애호 관련 문교부	1966 장병체육활동 종목으로 채택
교육 정책 수립	국군태권도부 설치
1968-1973 한글전용정책 실시	국방부훈령 제 95호(1966)
한글전용 5개년계획 수립)	1971 “국기태권도” 휘호
1968 문화공보부 발족(7월 28일)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
국민교육헌장 제정 공포(12월 05일)	1971 기관지 ‘태권도’ 창간호 발간
이순신동상건립	1972 중앙도장(국기원)준공
1969-1974 문화재개발 5개년계획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태권도 포함
1971 발명된 전통무술 태권도의 국기인정	1973 세계태권도협회 창설
1972 유신헌법제정	1975 국제경기연맹(GAISF)가입
유신교육정책시행	1976 국제군인체육대회(CISM) 정식종목채택
(주체적인 민족사관정립, 충효교육)	
1973 한국민속촌 건립(1974년 완공)	

7) “1961년 대한태수도 협회의 창설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포고령 제6호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포고에 의해 문교부의 유사단체 통합작업의 결과였다.” (전재호,

결국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기보다는 여러 무술, 특히 일본의 공수도에서 발전한 무술로써 박정희시기에 민족주의적 분위기와 스포츠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국기(國技)로 발명되었다. 즉, 태권도는 초기에는 사회에 의해 발명되었지만, 박정희시기를 거치면서 군을 비롯한 국가의 후원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 무술로 자리매김 되었다.” (전재호, 1988:99)는 것이다.⁸⁾

한편,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이 시기는 태권도 역사정립의 시기와 중첩된다.⁹⁾ 이시기 태권도사의 성격은 태권도의 기원과 현대적 의미를 조망하는데 있어 태권도의 정체성확보를 핵심담론으로 인식하고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무술을 계승 발전시킨 우리 민족 고유의 신체문화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통주의

1998:102)

- 8) 예컨대 박정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기구가 군사원호청과 문화재관리국이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나중에 각각 보훈처와 문화재청으로 승격되는 이들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예를 들자면 일본 공수도(空手道, karate)를 변형시킨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발명하고, ‘민족의 성웅(聖雄)이순신’으로 대표되는 영웅 만들기과 같은 일종의 ‘기념비의 정치학(politics of monument)’ 등 실로 다양한 전통담론들이 생산·발명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밝혀진 바 있기에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는다. 다만, 박정희 체제가 친일의 과오를 지우고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며, 국민을 결속하여 지배하기 위해 상무(尙武)정신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특정 과거의 기억을 선택, 호출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이다. (진경환, 2010:405)
- 9) 민족주의는 지배에 저항하는 대중을 안전하게 포섭하여 순종적 주체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지배담론이었다. 박정희 체제가 60년대에 보여준 자기 부정적 민족주의도 70년대 초에 이르면 긍정적 민족담론으로 바뀌고 있었다. ‘서구화 없는 근대화’나 ‘국적 있는 교육’ 담론이 생성되고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 같은 서구적 가치들은 비판되었다. 대신 협동, 조화, 융화와 같은 정신들이 민족의 고유한 미덕으로 찬양되었다. 이때 이선근은 한국사를 국난을 극복해 낸 민족사로 재구성함으로써 긍정적 민족 담론을 생성하기 시작했다. 라디오 방송 강이나 국무위원 대상의 한국사 특강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한민족의 국난극복사』는 긍정적 민족 담론의 최종 결과물로 저술된 것이다. 1972년 ‘총력안보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과 나라히 연설을 함으로써 지배체제와의 조우를 보여준 이선근은 종국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이 되어(1978) 국민 정신교육의 최고 사령탑이 되었다. (손수범, 2009:92-93)

이론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전통주의 이론은 수정주의 이론이 대두되기 전까지 태권도 역사이론을 주도하여 왔으며,¹⁰⁾ 태권도가 한국적 전통 하에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전승되어 온 고유문화로 타문화와의 관련성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어 민족주의 역사관과 그 지향을 같이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전통문화정책과 태권도 역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보면 이 시기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사관이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¹¹⁾ 이때 태권도사의 정립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선근(李璲根, 1905-1983)이라는 인물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박정희 정권은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내용을 체계화하여 교육 현장에 제시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화랑도연구』, 『한민족의 국난 극복사』 등을 통해 정권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¹²⁾

박정희와 이선근의 만남은 집권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우에 따

-
- 10) “전통주의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태권도의 원류를 한국의 전통무예로 보는 입장이며, 수정주의는 사실주의적 관점으로 일본의 가라테유입을 태권도의 원류로 보는 입장” (차명환, 2020:5)을 말한다.
- 11) 해방이후 정부와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 잔재의 청산을 외쳤지만, 이들 대부분은 일본제국주의 시기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는 없었다. 역사학계에서조차 1960년대에 들어서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사관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잔재가 얼마나 뿌리 깊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전재호, 1988:88)
- 12) 이선근은 일찍이 박정희 정권과 관계를 맺고 그의 역사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이데올로그들과 함께 정권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1970년대 독재 정권의 한국사 교육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그의 역사 인식이 『시련과 극복』이라는 독본의 형태로 제작, 배포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총론이나 기타 부분은 정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교과서적으로 집필된 것으로 보이지만, 화랑도 부분만은 이선근의 기존 저술을 거의 직접적으로 수록하였다. 1950년 전후의 ‘화랑도’ 론이 독재 정권과 그에 유착한 특정 이데올로그에 의해 1970년대 역사 교육의 장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박성현, 2015:74)

르면, 박정희가 가까이 했던 역사학자로는 이병도·이선근 등이 있었는데 집권 초기 역사학자들을 초치하여 강의를 들을 때 가장 빈번하게 온 것이 이선근이었다고 한다. 이선근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발탁된 것은 그가 만주국협화회에서 활동한, 만주 인맥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선근은 철학분야의 박종홍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정신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현, 2015:69)

주지하다시피 이선근은 최홍희와 함께 태권도사를 정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¹³⁾ 또한, 정순천(2021)¹⁴⁾에 의하면 “국기태권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최홍희이며, 1968년 주간조선의 기고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언론에 국기태권도의 제정을 주장한 사람을 이선근으로 밝히고 있다. ‘그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 낸 ‘민족정신’의 으뜸인 화랑정신’¹⁵⁾(손수범, 2009:96)이 태권도 정신으로 태권도사 속에서 위세를 떨쳤던 사실과¹⁶⁾ 국사편찬위원장, 문교부 장관, 정신문화

13) 최홍희는 역사학자 이선근과 함께 태권도의 역사정립(1966, 1971)을 통하여 전통무술로서의 태권도의 논리적 근거 마련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권도의 역사정립을 통한 태권도의 전통무술로서의 위상확립의 노력은 1970년대초 태권도 협회 차원에서 이종우(조완묵과 함께)(계간 태권도 창간호 - 6호; 1971- 1972)의 노력에 의해서 1차적으로 완성되었으며 그 이후 체육사학계의 나현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찬모의 작업(1976)에 의해서 체육사적 형식으로 가다듬어 지게 되었다. (양진방, 1997:143)

14) <https://mookas.com/news/17955>

15) 화랑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도 그다지 오래 되지 않는다. 신복룡에 의하면 화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학자는 신채호였고, 그 이후에 1930년대에 일본학자들이 화랑을 거론할 때만 해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었는가? 현재 신문에 연재중인 ‘신복룡의 한국사 새로 보기에 의하면 이 역시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사변이 일어나자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청년의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육군본부 정훈감이었으며 난중에 정신문화연구위원장을 지낸 역사학자 이선근(李璿根)대령에게 한국사에서 청년문화의 유산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대령이 ‘화랑도연구’(1954)를 출판했을 때 화랑은 하루아침에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청년문화의 유산으로 부상했다.(구효승, 2001:31)

16) 실제로 과거 국기원 홈페이지에 화랑정신이 태권도정신으로 구현되어 게시되었던

연구원장 등 굵직한 그의 이력을 감안할 때 정권의 이론가, 민족주의역사가였던 그의 역사인식이 당시의 시대적 이념과 어우러져 전통주의 태권도사 이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시기 우리 역사학계의 가장 큰 숙제는 식민사관의 청산이었고 이는 곧 민족사관의 정립으로 이어졌다. 태권도사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경향 역시 이러한 학문적 풍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론된다. 역사학의 일반론에 따르면 한국사학계의 학풍은 실증사학,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의 세 학파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주의 이론은 민족주의 역사관에 깊은 영향을 받은 패러다임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민족사관은 역사 인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낸다.¹⁷⁾

민족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되살린 점에서 민족주의 사학은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그렇지만 민족주의 사학이 기초하고 있는 민족사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그것은 민족을 초역사적 실체로서 신비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역사성을 배제한 민족의 원형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또 다른 역사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민족사관은 보편사의 시각이 약하다. 이것은 민족의 독자성과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민족사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한구, 2010, 492-493)

‘민족’이라는 개념은 학문적으로 이미 어떤 가치도 내포되어 있지 않은 상

사실과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해 “이선근 대령의 빛나간 애국심으로 화랑을 무사도로 왜곡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기원은 물론 태권도인 들에게도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경명, 2002:34)라는 주장으로 미루어 태권도사 정립과정에 이선근의 역사 인식이 투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7) 태권도의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태권도의 기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들로 해석 가능하다. 태권도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태권도를 우리나라의 특정 역사와 결부 짓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즉, 태권도를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는 과정에서, 태권도에 민족주의적 색깔이 자연스럽게 채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용규, 김동식, 1016:6)

대적 개념으로 규정된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의 왜곡 및 보편사의 시각을 벗어난 인식론적 문제점에 대해 양진방(1997, 145-146)은 역사기술로서의 기본적 원칙마저도 무시된 사실성의 부족, 역사적 맥락의 부재, 태권도사로서의 고립성과 폐쇄성, 역사적 내용의 추상성 등을 전통주의 태권도사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복규(2018; 4)는 “과거와 역사가의 대화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잃을 때 그 대화가 역사가의 일방적 독백으로 전락하고 마는 예를 전통주의 태권도사에서 발견”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권도사 정립시기인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민족의 정체성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국가주도 전통문화진흥정책과 민족주의의 등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으며, 이때 생성된 전통담론들이 현재까지도 태권도 역사로 남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사 정립시기의 시대적배경과 태권도사에 내재된 민족주의는 감성과 운명공동체라는 비이성적,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태권도의 보편성 보다는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전통무술 기원과 일치체를 통해 역사의 연속성, 배타성을 주장하는 편향적 역사관을 주입하게 됨으로써 태권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¹⁸⁾

Ⅲ. ‘기원’의 인식론적 의미

18) 민족주의 개념정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는 첫째,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다른 사회 이데올로기와 결합해야만 나타나는 2차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완결된 논리구조를 갖출 수 없으며 늘 가변적이라는 점. 둘째, 여러 민족들이 겪은 경험의 다양함으로 인해 보편적 이론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운동의 방향에 따라 조작되기가 쉽고 다분히 감성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정수일 등, 2004; 61).

196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태권도사는 대체로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술로 전통성 확보를 핵심 담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띠고 한국의 전통무술과 태권도의 연속성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양진방(1986)의 ‘해방 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¹⁹⁾는 가라데 유입설을 주장하고, 김용옥(1990)이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²⁰⁾에서 이러한 가라데 유입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태권도 역사 논쟁은 이 두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태권도의 기원을 한국 전통무술과의 연장선상에 놓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를 통해 태권도의 발생시기와 존재의 근거, 문화적 맥락 등을 구체화하여 전통무술과 태권도와의 정체성(identity)을 동일시하기 위한 것으로 초창기 태권도사 연구에 있어 보편적 논리로 작용하여왔다.²¹⁾ 그리하여 현재의 태권도는 과거의 전통무술과의 통일성, 연속성을 담보 할 수 있게 되는데 태권도사에 집중적으로 동일된다는 것이 바로 ‘기원’이라는 개념이다. 기원은 서구 역사학의 지적 전통 하에서 역사의 주체이자 진리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특히, 자료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편향적 혹은 목적론적 역사 서술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것은 기원의 개념에 대한 제한적 해석의 문제와 연관된다.

즉 기존의 역사학은 기원을 소급하기 위해 역사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학이 지닌 연속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지양한 새로운 비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되는 인물이 미셸푸코이다. 그는 기원이라는 개

19) 양진방(1986).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 김용옥(1990).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21) 전통성의 확보란 각 무도 종목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무술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를 말한다. 이들의 노력은 자신들의 무술이 외래의 것이 아닌 우리 역사 전통속에 전승되어온 것이란 점, 따라서 그 기술과 정신이나 사상이 순수한 우리의 것, 즉 한국적인 것임을 주장하고자 하는데에 까지 이르고 있다.(양진방,1998:20)

념의 인식적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원 개념은 역사의 근원적 동일성(identity)을 상징한다. 기원을 정초하려는 노력은 사물들의 정확한 본질(essence), 그것들의 동일성들을 포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부동의 형태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불멸의 진리에 대한 이미지에 지향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근원적 동일성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은폐물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사유법이다. 둘째, 기원 개념은 물역사적이고 비사회적이다. 기원에 대한 추구는 사물들이 그 탄생의 순간에 가장 고귀하고 본질적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는 기원이후의 사태가 그러한 고귀함과 본질의 몰락 과정임을 뜻하는데, 이런 점에서 기원은 세상과 시간 이전에, 세상과 시간을 벗어난 물역사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다. 셋째, 기원에 대한 정초는 절대적 진리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는 진리와 오류, 진리와 현상을 대립시키면서 오류로서의 현상이라는 베일을 벗기면 그 밑에 절대적 진리가 남아 있으리라고 가정한다.(김주환, 2004: 61)

이처럼 푸코에게 있어 역사란 기원을 정초하고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의 연속성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고유한 사건으로 당시의 시대적 공간적인 특이성을 새로운 기원을 통해 기술하는 것으로 기원을 불연속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려는 것이다.²²⁾

특히, 푸코의 저서 『지식의 고고학』은 시대별 지식의 토대와 구조에 대해,²³⁾

22) 첫째, 고고학적 인식은 역사에서의 단절을 가능하다면, 확대시켜 보자는 방식이다. 즉 역사의 연속성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정의하고, 유사한 종적 계열들을 공통적인 법칙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둘째, 역사를 불연속성의 개념으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연속성의 개념은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즉 불연속성의 개념은 역사연구의 개념이자 도구로서 기능한다(양해림, 2006:314).

23) 푸코의 관심은 지식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지식을 둘러싼 관계들에 의해서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혹은 누가 이러저러한 지식을 구성/생성하는가가 문제이다. 푸코는 지식이 발전한다는 관념을 믿지 않는다. 지식은 각 역사적 시대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성욱, 1992:216)

『말과 사물』은 ‘에피스테메(episteme)’²⁴⁾ 분석을 통해 지식과 역사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며 역사적 기원의 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반성을 전개한 대표적 연구들로 알려져 있다. 결국 푸코는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기원, 연속성, 총체적 등을 핵심 개념으로 문화의 연속적인 발전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역사 서술방식을 전면 부정하고 역사 인식에 대한 본질적 단절과 변화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²⁵⁾

이러한 푸코의 역사연구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사유들을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온 전통적 역사가들에게 ‘역사의 부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푸코는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연속성이 역사연구의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푸코의 역사연구는 근대의 역사서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면 태권도사 연구에 있어서도 전통성 확보를 핵심 담론으로 인식하고 그 중심에서 역사의 주체로 기능해온 기원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의 어의에는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예컨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역사로서 인정된다. 혹은 200년 이상을 역사로 정의한다. 라는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의 어의를 살펴본 이유는 태권도의 역사가 ‘1945년 이후 새롭게 시작된 역사이다.’ 혹은 ‘우리나라 전통무술(택견, 수박등)을 계승한 무술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역사로서의 표현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즉, 어떤 대상의 기간과 정체성은 반드시 비례하

- 24) 푸코의 ‘에피스테메(episteme)’ 개념은 역사의 각 시기에 단 하나씩만 존재할 수 있는 사유의 경계이자 토대라고 가정되는 인식론적 시대구분을 의미한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 인식론적 구조들은 각 시대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르게 인식됨을 밝히고 절대적 기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연속적,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기존의 역사관을 전면 부정한다.
- 25) 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의 주요개념들, 즉 연속성, 전통, 영향, 인과성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관념의 역사에 있어서의 파괴, 비연속성, 분리 등의 개념에 관심을 갖는다. 말하자면 관념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마다의 유사성에 보다는 차별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이광래, 1996:82)

는 것은 아니다. 태권도 역사 1945년 이후 탄생한 짧은 역사의 새로운 무술이라고 해도 그 정체성에 대한 의심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주석, 안용규, 2013:208) 26)

역사관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역사는 없다. 따라서 역사관 없이 역사를 기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연구에 있어 특정 역사관을 통해 역사의 사건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태권도사에 가해진 편향적, 목적론적 역사 서술이라는 인식론적 한계는 역사에 관한 여러 관점들을 수용하고 비교 판단함으로써 역사에 관한 인식 지평을 확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현대에 재현된 과거를 실제 모습에 조금 더 가깝게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시대적 상황과 태권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인식론적 한계와 함께 역사연구에 있어 인식의 주체이자 토대로 기능하였던 '기원'의 의미를 회의를 하여 태권도사 연구에 관한 인식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국가주의이데올로기가 극성을 부린 시기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전통문화' 담론을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지배담론으로 인식하고 전통문화 진흥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태권도는 전통무술이 되어 국기(國技)로 발명되었으며 국가의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둘째, 태권도사 연구에 나타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감성과 운명공동체라는 비이성적,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태권도의 보

26) 고유성은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다. 그들만이 갖는 독특함, 개성이 바로 고유성이다. 고유성이 시원의 문제가 아니고 개성의 문제라면, 즉 독특함이 바로 개성이고 고유성이라면, 한국적인 것을 판단하는데 시원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탁석산, 2005:86).

편성 보다는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전통무술의 기원과 태권도를 일치시켜 역사의 연속성, 배타성을 주장하는 편향적 역사관을 주입하게 됨으로써 태권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인식론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역사적 사실은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행위이다. 따라서 ‘기원’ 을 이해하는 관점은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때 비로소 현대에 호명된 과거를 실제 모습에 더 가깝게 재현할 수 있음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효송(2001). 태권도 -민족주의에서 세계화로 -. **세계태권도학회지**, 5, 27-36.
- 김영임(2013). **전통단절론 연구-1930년대와 前後 전통 논의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주환(2004). **비판전략으로서 푸코의 ‘외부의 사유’ 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나영일(1994). 전통무예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3(2), 64-86.
- 나영일, 최복규, 김성재(2001). 전통무예의 문제점과 과제. **대한무도학회지**, 3(1), 295-314.
- 박성현(2015). 박정희 정권의 ‘화랑도(花郎道)’ 교육-내용의 연원과 관철의 방식. **역사와현실**, 96, 51-77.
- 손수범(2009). 이선근의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사교과서. **역사와 역사교육**, 19, 87-126.
- 송형석, 이규형(2008). 태권도역사논쟁: 신전통주의의 수정주의 비판에 대한 예비판. **한국체육철학회지**, 16(2), 157-177.
- 신창화(1993). **한국 외교의 문화적 수단으로서 태권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양진방(1997). 태권도 역사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논의. **용인대학교 무**

- 도연구소지, 8(2), 143-152.
- 양진방(1998). 무술, 무예, 무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9(1), 19-29.
- 양해림(2006). 푸코의 포스트구조주의; 『지식의 고고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3(2), 303-325.
- 윤영도(2007). 냉전기 국민화 프로젝트와 “전통문화” 담론- 한국·타이완(臺灣)의 비교연구. **중국어문학논집**, 43, 331-349.
- 이광래(2005).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 열린 책들
- 이경명(2002). **태권도의 어제와 오늘**. 서울; 어문각.
- 이은영(2000). **미셸 푸코의 불연속의 역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이주석, 안용규(2013). 태권도 정체성 담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21(1), 205-221.
- 이한구(2010). **역사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임곤택(2011). 전통 개념어의 기원과 전통 인식. **비평문학(39)**, 323-345.
- 장용규, 김동식(2016). 태권도 민족주의 담론 형성의 주체와 전략. **국기원 태권도연구**, 7(1), 1-20.
- 전재호(1988).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 83-106.
- 정수일 등(2010). **재생의 담론, 21세기 민족주의**. 서울; 통일뉴스.
- 진경환(2010). 전통과 담론-전망적 요청을 겸한 단상-. **어문논집**, 61, 397-417.
- 차명환(2020). ‘전통’의 의미로 본 태권도사. **한국무예학회지**, 14(3), 1-17.
- 최복규(2018). 전통주의 태권도사 서술의 문제점. **국기원 태권도연구**, 9(1), 1-22.
- 태권도문화연대(2007). **태권도학 연구**. 서울; 상아기획.
- <https://mookas.com/news/17955>

ABSTRACT

The inherent meaning of “origin” in Taekwondo history

Cha, Myong-Hwan(Yong-in Univ.)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and the cognitive horizon of Taekwondo history research by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ekwondo and the historical situation from the 1960s to the 1970s, the epistemological limitations of nationalist ideology, and the meaning of “origin”, which functioned as the subject and foundation of cognition in historical stud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1960s to the 1970s, nationalist ideology was at its peak. During this period, the Park regime recognized the discourse of “traditional culture” as the most powerful and effective dominant discourse and carried out a policy to promote traditional culture. In this process, Taekwondo became a traditional martial art and was invented as a national sport. Consequently, Taekwondo developed rapidly owing to the nation’s all-around support policy. Second, the nationalist ideology revealed in the study of Taekwondo history contains sensibility and the concept of a group sharing a common destiny, which were irrational and totalitarian characteristics. There is an epistemological critique that the essence of Taekwondo can be distorted because it is injected with a biased historical view that emphasizes the universality of Taekwondo rather than the specificity of the nation and asserts the continuity and exclusivity of history by aligning the origi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with that of Taekwondo. Third, historical facts are human actions based on interpretation. Consequently,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origin” cannot be universal or absolute. It has to be emphasized that it is possible to reconstruct the past, called in the present age, more closely to its actual appearance only when accepting diverse perspectives and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historical continuity.

Keywords: Taekwondo history, traditional culture, origin

논문투고일 : 2021.10.06.

심사일 : 2021.10.12.

심사완료일 : 2021.11.14.